

붙임 3**제2회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문화상품 공모 유물 목록**

번호	유물명
1	화조어해도 8폭 병풍
2	통영지도나전장
3	조선통신사선
4	해시계
5	뉴턴 일가의 지구의 천구의
6	투구

번호	1	유물명	화조어해도 병풍(花鳥魚蟹圖 屏風)		국적	한국					
					시대	대한제국(20세기)					
크기(cm)		가로	높이	재질	지류						
		336cm	145cm								
사진		  									
							<p>유물설명</p> <p>위쪽에는 화조도 아래쪽에는 어해로 구성되어있는 민화 병풍이다. 산수와 인물을 제외한 하늘을 나는 새와 물의 가축을 비롯한 맹금(猛禽) 등 야생 길짐승과 물고기로 대변되는 물속의 다양한 어족(魚族), 그리고 각종 식물 등이 등장한 그림 전체를 칭한다. 이들 동식물이 지니는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과 각각의 좋은 상징성으로 선사 시대부터 오랜 세월 즐기치게 그려졌다.</p>				

번호	2	유물명	통영지도나전장			국적	한국
						시대	조선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나전, 나무		
	81.8cm	40.1cm	48.5cm				
사진							
유물설명	<p>일반 목가구의 문양과 달리 나전으로 통영지도를 묘사하여 장식한 농이다. 문판 전면은 통영 지역의 지도를 나전으로 장식하였으며 목재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면의 네 귀와 상·하 4개, 좌·우 2개씩 원형의 귀장식과 감잡이를 부착하였다. 또한 여닫이 구조의 문판에는 원형의 앞바탕에 원형 경첩을 달아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고 있다. 농의 전면에는 통영지도를, 좌·우측면과 천판에는 산수문양을 장식하였다. 이 자료는 농이 만들어진 19세기 통영 지역의 바닷가 마을 모습을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p> <p>통영지도 나전농의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문판 및 전면의 테두리에는 꿩문으로 뇌문을 둘러었으며, 전면에 통영지도統營地圖 글자를 꿩문으로 표현하였다. 테두리는 운문雲紋, 나무와 배를 표현할 때는 줄음질로 나타냈다.</p>						

번호	3	유물명	조선통신사선		국적	한국
					시대	조선(복원)
크기(cm)	너비		길이		재질	나무
	480cm		1740cm			
사진	 					
유물설명	<p>실제 조선통신사선의 1/2로 축소 제작한 배이다. 조선통신사선은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약 250년간 12회에 걸쳐 파견되어 양국간 평화관계와 문화교류 및 정치·외교 현안을 논의한 통신사들이 탔던 외교선박으로 당시 조선시대 일반적인 선박보다 크고 화려한 의장을 갖춘, 일본의 조선기술 보다 앞선 건조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선이다.</p> <p>일반적으로 통신사선단은 대선·중선·소선 각 2척씩 6척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척에는 정사·부사·종사관이 각각 수행원과 함께 탑승하고, 다른 3척에는 화물과 나머지 인원이 탑승하였다.</p> <p>정사·부사·종사관이 탑승한 배를 기선(騎船), 화물과 나머지 인원이 탑승한 배를 복선(卜船)이라고 불렀다.</p> <p>통신사선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와 『사행록(使行錄)』, 『헌성유고(軒聖遺稿)』 및 우리나라와 일본에 남아 있는 그림 자료 등이 있다.</p> <p>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은 위와 같은 기록을 근거로 마지막 사행에 사용된 선박을 바탕으로 복원한 것이다.</p> <p>조선 순조 때(1811년) 정사 김이교를 대표로 부사 이면구, 제술관 이현상 등 총 300여 명의 일행이 대마도에 가 도쿠가와 이에나리(1787~1837)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던 사행이었다.</p>					

번호	4	유물명	해시계			국적	국적미상
						시대	시대미상
크기(cm)	가로		세로	높이	재질	금속	
	18.6cm		23cm	9.4cm			
사진							
							
							
유물설명	<p>현 위치의 위도 경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나침반 겸 해시계이다. 뒷면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의 지명이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p>						

번호	5	유물명	뉴턴일가의 지구의 천구의		국적	영국
					시대	1846년
크기(cm)	구 지름		높이		재질	나무
	53cm		90cm			

사진



유물설명

19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지도 제작자인 존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의·천체의 세트이다. 지구의, 천체의, 마호가니 받침대 구성으로 1846년에 제작하였다. 동해를 “GULF OF COREA”로 표기하였고, Cook 선장의 항해로가 기록되어 있다. 마호가니 받침대가 장식적으로 조각되어 아름답다.

번호	6	유물명	투구	국적	한국
				시대	조선 후기
크기(cm)	높이		폭	재질	금속, 나무, 말총
	402cm		29.4cm		
사진					
유물설명	<p>조선 후기에 두정갑주에 사용된 투구이다. 투구 덮개의 상부頂蓋部는 반구형의 개철蓋鐵로 위쪽은 당초문을 투조했고 아래는 대선帶線을 둘러 투구 몸체의 근철筋鐵을 고정하는 작은 못을 박았다. 투구 몸체는 위는 좁고 아래로 점차 퍼지는 형태이며 재질은 가죽에 흑칠을 하였다. 전후·좌우에 황동의 근철을 늘어뜨렸는데 근철 중앙에 당초문을 조성했다. 전면부의 좌우에 용문龍紋이 있고, 후면부 좌우에는 봉황문이 조성되어 있다.</p> <p>하단의 목가리개를 고정하는 대선에도 당초문이 새겨져 있다. 전면의 햇빛 가리개에 용 문양이 투조되어 있고, 아래 이마 가리개에는 목숨 수壽자가 새겨져 있는데, 끝마무리는 백동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목가리개는 모두 소실되어 없으나 잔존 물질로 판단하건대 걸감은 홍진紅氈이고, 안감은 북청색운보단北靑色雲寶緞으로 추정된다. 투구 상부의 장식은 모두 소실되고 상모와 상모 드림판만 남아 있는데, 상모 드림판에도 당초문이 새겨져 있다.</p> <p>전체적으로 투구 품이 좋고 상부 장식이 손실되었으나 장식이 정갈하고 투구 표면의 ‘용문’, ‘봉황문’ 등의 장식기법이 정교하고 세련되기에 신분이 높았던 인물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p>				